

불교참여로 호국정신 구현

마음까지 나누는 수확의 유익함과 같이 대한민국 국군 예비역불자연합회가 소중한 뜻을 모아 「제1회 호국불교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불어 진력을 다해주신 박정이 회장님과 관계하신 불자 여러분께 격려와 치하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난 세월동안 군 불자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을 통해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포교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은 미래를 위한 헌신이자 불교계의 큰 공덕입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전후방 각지에서 군승 법사님들에 의해 다져지는 포교와 전법의 원력은 ‘하나의 등불이 모여져 온 세상을 밝히게 된다’는 유마경의 가르침처럼 결코 한 순간의 작은 등불로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태동과 성장을 지나 이제 중년의 성숙함에 들어서시는 군 불교는 지나온 시간들에 안주하기 보다는 자랑스러운 군 불교의 역사를 밑거름 삼아 다가올 50년, 새롭게 도약하는 군 불교의 전기를 마련해 가기를 많은 불자들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군 불교를 외호하고 든든한 뒷받침이 될 「대한민국 국군 예비역불자연합회」는 군종특별교구장으로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정우스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숙과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여,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빛으로 나아가고 있기에 이미 불교계의 커다란 모범이라 할 것입니다.

군승 법사님들을 비롯한 군 불교의 모든 구성원이 힘찬 정진으로 능동적인 불교참여를 이끌어 내고, 불교정신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고 보다 바르고 안정된 국가사회 건설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1회 국군 예비역불자연합회 호국불교 포럼」을 축하드리며, 부처님의 가피가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 승